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장 전 수 한(02-2100-1690)	담 당 자	박 종 혁 사무관 (02-2100-1697)
	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한 민 영(02-2100-7711)		김 미 경 사무관 (02-2100-7789)

제 목 : 제11차 한국 - 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 개최

◆ 한국 - 덴마크 정부, 금융기관,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,
“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”을 논의하였습니다.

1 행사 개요

- 한국(금융위, 외교부)과 덴마크(기후에너지전력부) 정부는 '22.2.22.(화) 제11차 한국 - 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하이브리드* 형식으로 개최하여 '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'을 논의하였습니다.

*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상 및 현장 동시 진행

- 이번 회의는 P4G 서울 정상회의(‘21.5.30. ~ 5.31.) 기간에 개최된 한국 - 덴마크 정상회의 이후 처음 개최된 양국 간 행사입니다.

※ 한국-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은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, 녹색기술 증진 등 녹색성장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출범한 이래, 매년 장관급 회의를 우리나라와 덴마크에서 교차 개최 중

- **일시 / 장소** : '22.2.22.(화) 16:00~18:30 / 롯데호텔 에메랄드룸
- **참석자** : (한)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,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,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KB금융지주, 삼천리 자산운용
(덴) 크리스티안 스텐베르그 기후에너지전력부 차관,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 대사, EKF, Orsted, CIP, 펜션덴마크

□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영상 환영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.

- 이를 위해, 우리 금융당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,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며,
-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*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*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유도 등

□ 크리스티안 스텐베르그 덴마크 기후에너지전력부 차관은 영상 환영사에서 화석연료 생산 감소를 위한 이니셔티브(BOGA)* 출범 등 덴마크의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.

* Beyond Oil and Gas Alliance, 석유·가스의 탐사·생산 폐지를 국제 환경논의 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덴마크, 코스타리카 주도로 '21.11.11일 출범한 동맹

- 또한, 현재 전력 사용량의 80%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덴마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, 향후 풍력발전 등에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□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재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바, 양국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오늘 행사가 민관 파트너십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.

- 우리 정부는 기후재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, 녹색기후기금(GCF),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(GGGI), P4G 등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그린 ODA를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.

*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

- 이번 회의는 ①민간의 기후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, ②탄소多배출 산업의 저탄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, ③청정에너지 사업 투자유치 경험 및 교훈, ④금융부문의 탄소중립 기여방안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,
 - 한국의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KB금융지주, 삼천리 자산운용 및 덴마크 Orsted(전력회사), EKF(수출신용기관), 펜션 덴마크(연기금), CIP(에너지인프라 투자회사) 등이 참석하여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.
 - 덴마크 기업 최고경영진들은 코로나19에도 적극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양국 간 논의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.
- 이번 제11차 한국-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는 작년 녹색성장 동맹 출범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'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'로 격상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,
 -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(GGGI), P4G 등을 중심으로 기후·환경 분야에서 중요 파트너 국가인 덴마크와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시간	내용
16:00-16:05 (5분)	김효은 기후변화대사 개회사
16:05-16:25 (20분)	수석대표 환영사 - (한) 고승범 금융위원장 - (덴) 크리스티안 스텐베르그 기후에너지전력부 차관
16:25-16:30 (5분)	휴 식
1세션 16:30-16:55 (25분)	기후 분야 민간투자 진흥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(How governments can unlock private investments in climate solutions) - (덴) Peter Boeskov 덴 수출신용기관 EKF CCO - (한) 김호준 한국수출입은행 혁신금융총괄부 부장
2세션 16:55-17:20 (25분)	탄소다배출 산업의 탄소감축 과정상 기회요인 (Financial potential in de-carbonizing the hard-to-decarbonize sectors) - (한) 산업은행 안옥상 ESG·뉴딜기획부장 - (덴) Martin Neubart 오스테드(Orsted), CCO 및 부CEO
17:20-17:25 (5분)	휴 식
3세션 17:25-17:50 (25분)	청정에너지 투자유치 경험 및 교훈 (Attracting investors to clean energy projects — Lessons Learned) - (덴) Jakob Baruel Poulsen, CIP, managing partners - (한) 삼천리 자산운용사 이창석 부대표
4세션 17:50-18:15 (25분)	금융부문의 탄소중립 기여방안 (Ways to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ty in the financial sector) - (한) KB금융지주 문혜숙 ESG 전략본부 상무 - (덴) Torben Möger Pedersen 펜션덴마크 CEO
18:15-18:25 (10분)	폐막사 - 아이너 연센 주한덴마크대사